

<부산대 '베스트 리서처'에 하창식 교수>

2007년 12월 27일 15시 19분

(부산=연합뉴스) 이종민 기자 = 부산대는 응용화학공학부 하창식 교수(고분자신소재 공학 전공)를 올해 '베스트 리서처(Best Researcher)'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.

부산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가장 우수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'베스트 리서처'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.

고분자공학 및 고분자나노소재 개발에 매진해 온 하 교수는 최근 3년간 SCI(과학기술논문색인)급 논문 90편(주저자.교신저자 포함 52편, 공동저자 38편)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기량을 발휘했다.

부산대는 교수업적관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 상위 1% 내외의 우수 교원 13명을 '2007 프리미어' 교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심사, 하 교수를 최고 연구자로 선정했다.

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부산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무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.

하 교수는 1982년 9월 부산대 교수로 임용된 후 모두 420편의 논문과 18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, 260여편의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 발표 등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고분자공학과 고분자나노소재 개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.

ljm703@yna.co.kr